

<글말교실 소감문>

필수교양인 글쓰기 수업을 통해 과제로 소논문을 한 학기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소논문을 작성해보지 않았고, 제대로 접하지도 않아 소논문 작성은 제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통해 많이 배웠으나, 여전히 제가 직접 글을 작성하는 데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고충을 학우에게 나누니 그 학우가 본인도 신청했다며 글말교실을 소개해주었습니다. 그 학우의 추천을 따라 소논문 작성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까 하여 바로 일대일 코칭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후 바로 다음 날 김남혁 교수님으로 매칭이 되었고,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자마자 다음 날 바로 교수님으로부터 메일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글말교실을 신청하고 나서도 조금함 때문에 “혹시 매칭이 늦게 되면 어쩌지!”, “피드백이 늦으면 어쩌지”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걱정과는 다르게 너무나 빨리 매칭이 되었고, 교수님의 피드백 역시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글말교실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나 높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남혁 교수님의 피드백은 섬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저의 글을 보시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따로 표시하여 메모를 남겨주셨고, 마지막 장에는 교수님의 의견을 A4 한 페이지에 따로 작성하여 회신해 주셨습니다. 글의 아쉬운 부분을 집어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도 함께 제시해 주셔서 더욱 효율적인 코칭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김남혁 교수님의 섬세한 코칭 덕분에 소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을 받아 이전보다 내용이 풍성해진 소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자신 없고 어려웠던 글쓰기 수업에 A라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글말교실은 저에게 있어 너무나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글말교실 일대일 코칭에 발전을 위하여 한 가지 보완점을 꼽자면 피드백을 메일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신청할 때와 같이 분리된 게시판을 통해 진행되는 방법과 메일 수신 후 국민 특을 통한 알람이 있다면 더욱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메일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게 되어 메일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다른 메일에 섞여 확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거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완하게 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일대일 코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아쉬움 말고는 너무나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글말교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선후배님이 함께 참여하여 많은 도움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금년도 글말교실에 고민하다 참여하지 못한 학우분들이 계신다면 졸업 전 꼭 한 번은 신청해서 많은 것을 얻고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글말교실을 알려준 학우에게도 김남혁 교수님에게도 모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는 글말특강에도 꼭 한 번 참여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다양한 글말교실을 신청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